



李喜泰 (1925~1981)

건축사의 과도기 속에서 활동한 사람들로 이들의 작업은 그 시대

한국의 건축가 / 이희태(1)

Korean Architect, Lee Hui-Tae

이희태 건축에 나타난 건축어휘의 특징

梁勝宿/ 자유기고가
by Yang Seung-Suk

한국 현대건축사는 그 주류의 근원을 박길룡에서 출발한다. 해방전,해방이후 그와 상관관계를 맺거나 관공서 활동을 한 이들에 의해 현대건축사는 주도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연장선에 김종업,김수근도 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건축인은 종합건축을 이끌었던 이천승, 김태식설계사무소의 김태식, 신건축의 정인국, 이희태건축연구소의 이희태, 그리고 엄덕문, 장기인, 이광노 등이며 이밖에도 여러사람이 더 있다. 이들은 한국 건축사의 과도기 속에서 활동한 사람들로 이들의 작업은 그 시대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 그리고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작업량에도 역사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재평가되고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희태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분석된 특징은 그 시대의 한계와 모순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의 명료화를

통해 현재의 창작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희태는 정식 교육기관으로는 2급¹⁾ 정도의 수준에 있던 공업기술학교²⁾ 출신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교육을 받은 2세대 건축가³⁾로, 해방이후 활발한 건축활동을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전 및 전통요소를 작품에서 현대화 하고자 노력한 작가중의 한사람으로 그의 작품에는 작품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근대성과 고전성이 함께 나타난다. 근대성이 나타나는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기능성을 추구하고 있고, 고전성을 나타내는 건축물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로 성격적으로도 전통요소를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당대에도 이미 여러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전통이나 고전의 요소가 박제화되지 않은 채 현대화하는 과정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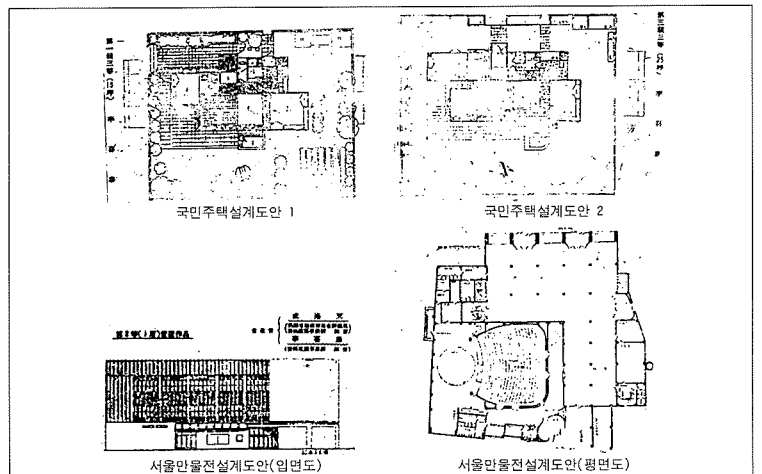
이희태가 건축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16세의 나이로 경성공업 직업학교 건축과에 진학한 이후로, 진학 이전에는 조각 등에 관심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오늘날 한국 현대건축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속에서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해방을 전후한 박길룡, 김종업, 김수근, 이희태 등과 같은 현대건축의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건축사의 과도기로 불리우는 해방 전후기를 이끌었던 이들은 당시의 시대적 암울함과 모순을 딛고 많은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된 평가조차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본지는 이희태를 시작으로 그들의 작품세계를 분석·소개하는 자리를 마련, 선각자들의 정신과 업적이 한국건축사속에서 새로이 재조명되어지고 올바르게 자리매김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건축의 새로운 형식추구

- 1) 박길룡, 한국현대건축의 세대론을 위한 구도, 이광노교수 퇴임 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1993
- 2) 김옥성, 1945년에서 1955년까지 한국건축계 형성기 성격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논, 1990
- 3) 조영부, 한국현대건축의 발전(1-2), 공간, 8007-8008
- 4) 김정동, 건축가 이희태, 대담, 꾸림, 1977, 9
- 5) 김옥성, 1945년에서 1955년까지 한국건축계 형성기 성격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논, 1990

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의 권유로 경성공업직업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와시마(川島)라는 선생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건축에 관심을 갖고 몰두할 수 있었다⁶⁾. 이 시기는 일제의 식민지 활동이 체계화되고 '대동아공영'을 주장하던 제국주의 시절로, 우리나라에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데 기반이 된 공공건축(관공서)과 군수, 산업시설물들이 상당히 진척된 때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모순된 체제 속에서도 정착, 확대되어 가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희태가 경성공업직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던 1942년은 태평양전쟁의 확대양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징용과 징병의 대상으로 전쟁터에 끌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대다수의 건축인들은 징용면제의 방편으로 전쟁을 피해 조선 비행기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당시 일본 매판자본가로 잘 알려진 박흥식이 경영하던 군수공장으로 이천승, 김태식, 김중업, 김명집, 이명희 등의 선배건축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건축계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대다수는 후에 한국건축작가 협회(1957.1) 결성에 중요 구성원이 되었다⁷⁾.

해방후 좌우익의 대립으로 이데올로기가 문화전반에 심화되던 당시에 이희태는 이천승이 주축이 된 '도시계획연구소'를 나와서, '이희태 건축연구소'를 설립하여 독립함으로써 건축가로서의 작업을 시작한다. '조선건축기술단'의 활동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 이희태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지로 이러한 것은 '조선건축기술단'의 기관지였던 '朝鮮建築'지에 기록된 연설과 기고했던 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이희태가 '朝鮮建築' 1947년 6월호에 실고 있는 <신건축의 이념>이라는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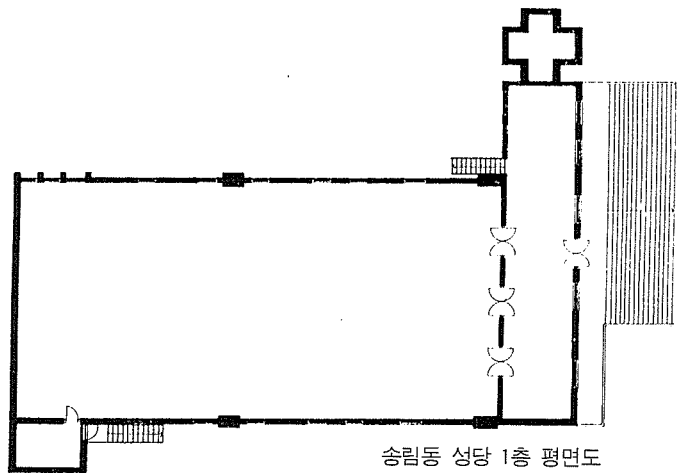
“애굽, 희랍, 로마, 비잔틴 등 각 건축의 특징은 각 시대의 사회상의 반영을 말함이다. 그러면 제2차대전 이 세계사에 구획의 선을 건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세계 노동인민의 민주주의운동이 힘

차게 전개되고 있으며 조선도 이 운동의 일환으로써 민주주의 과업이 날로 성취되고 있는 것은 신세대의 탄생을 말함이다. <건축>이 어느 일정한 시대의 사회상의 반영이라면 반드시 조선에도 새<건축>이 탄생할 것은 재언을 요(要)치 않는 것이다. ...(중략)... 유기사회전체의 욕망을 대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본질상 <건축예술>은 음악과 무용보다 이상의 고도의 '사회성'을 필요로 하고 그 <집단성>을 그 목적에? 어서와 같이 혹은 그것이상 강력한 하나의 절대명령하에 두오는 가장 갈등적인 모든 제요소들을 결합하여?력, 압력, 재료, 지질 등의 물질적 조건을 극복하여 기후, 계절의 환경이나 로카리티와도 싸우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중략)... 금일에 있어서 새로운 건축의 탄생 즉 완전한 예술로서의 건축작품은 형식적 완성외에 예술가 건축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전제가 있음으로 비로서 나타날 것이다. 제2차대전(人戰)의 종막을 싸고도는 20세기 민주과업기에 세계각국 신진건축가들은 씩씩한 사명을 띠우고 새로운 건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때 조선의 건축가의 존재는 나라는 없으나 우리조선의 건축가도 예술가인 동시에 과학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장차 전개될 새로운 사회조직하에 건축가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⁸⁾

이 글을 살펴보면 이희태의 건축개념 몇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척 근대적인 입장에 작가가 서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희태는 우선 건축이 '시대의 사회상의 반영'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건축의 탄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건축을 <건축예술>이라고 하면서 그 이전의 기술적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건축가도 예술가인 동시에 과학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건축가의 사회적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송림동 성당



송림동 성당 1층 평면도

6) 조선건축, "신건축의 이념", 1947.6, p.32-33

7) 김정동, 건축가 이희태(대담), 꾸밈 7709

"피난생활이 끝나고 성당과 ... 처음 시작이 흑석동의 명수대 성당입니다. 성당의 기존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뾰족탑을 없애 버렸으니까요. 당시엔 파격적인 발상입니다."

8) 김봉렬, 좌절과 성취 - 건축가 이희태와 절두산 순교기념관, 공간 9410

9) 김봉렬, 좌절과 성취 - 건축가 이희태와 절두산 순교기념관, 공간 9410

즉 전반적으로 글은 건축에 대한 신념이 나타나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에 거는 기대가 작가의 가슴 속에 설레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며, 해방후 건축인들의 사회에 대한 사명감과 실천 의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가 많은 활동을 했던 1950년대초에서 80년대 초까지는 정치,사회적인 개념에서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의 흐름도 이 흐름과 같이 '1945~1961년', '1961~1972년', '1972~1981년'으로 나눌 수 있다. 해방후부터 1961년까지는 해방공간과 전쟁이 혼재된 시기로, 재건의 깃발을 높이했던 기간이고, 5.16이후의 다음시기는 경제성장과 전통의 논란이 대두되었던 시기이며, 유신이후의 다음시기는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의 폐단이 나타나고, 정권의 정통성문제가 대두되어 건축에도 복고주의 양식이 요구되던 시기이다. 여기서 정권의 정통성확립의 방안으로 나타난 민족주의의 대두는 건축계에 전통논의를 불러왔고, 복고주의 양식으로 많은 건물을 함몰시켰다. 이희태는 1960년대 후반에 절두산 순교복자기념관(1967)을 통해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과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박물관류의 건축물 등에서 재료와 독자적인 건축어휘를 통해 복고주의 형식을 벗어나고 있다.

목 글 : 이희태 건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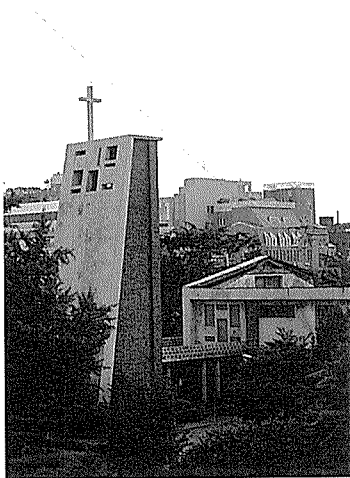
이희태의 전통건축양식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것에 대한 끈질긴 정성"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굵직한 공공건물을 다수 설계해 온 이희태의 건축 입장과 한국 관료건축주들의 관심을 살펴보면 근대화의 과정에서 고민하는 건축인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의 관료들은 변영하는 조국을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할 근대화 역군으로 '근대주의적 표현'을 요구하고, 정통성의 모범으로서 '한국적인

표현'을 요구했으며, 정권수호의 의미로 '권위주의적 표현'을 요구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현방식은 구체적으로 시각화돼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양식'은 주요문제로 부상되었는데, 당시-작가가 주로 활동했던 제3공화국 시기-에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 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란 극히 드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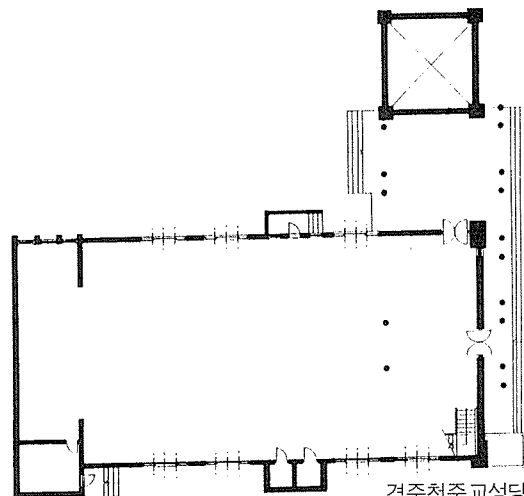
이희태의 작품연혁은 전쟁중에 설계한 '명수대천주교성당(1952)'으로부터 시작한다. 명수대성당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작가의 대답" 내용을 보면 작가가 이 건축물에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건축적인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희태는 '인천 송림동천주교성당(1954)', '진해천주교성당(1955)', '경주천주교성당(1955)' 등을 거쳐 '해화동천주교성당(1955)'에서 독자적인 성당건축 양식을 정립해 낸다. 이 시기는 이희태가 서울대 미대에서 시간강사로 출강을 하던 때로, 장발과 김세중 등 미술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명수대성당에서부터 미술인들과 협력관계를 갖게 되는데, 후에 '해화동성당', '절두산 순교복자기념관(1967)'에서도 함께 작업하게 된다. 초보적인 건축기술교육만을 받고 기술자로 출발한 그가 건축의 예술성과 사회성에 눈을 뜬 시기는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

이 당시 이희태 건축의 특징은 모더니즘계열의 형태로, 성당건축과 함께 건축의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모더니즘의 기술적 바탕 위에 자신의 개성적 형태언어를 결합하는 일에 몰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열의 건물로는 세련된 기능주의의 메트로호텔(1955)을 비롯해서, 계동빌딩(1955), 서강대학교 신부관(1960), 명지대학교 본관(1962), 용산 양곡방열창고(1966), 무역회관(1968) 등을 들 수 있다.

그가 한국 건축에 대해 이렇게 나름대로 실험적 시도를 시작하여,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할 수 있는데, 60년대에서 70년대에 그가 추구한 건축의 특성은 근대건축에서



경주천주교 성당



경주천주교성당 1층 평면도

- 10) 이 당시에는 "신용건축연구소"(1947)를 공동 운영하던 시기로 '조선건축 기술단'에서 함께 활동을 하던 시기다.
- 11) 이희태, 여성의 주택교육문제, 조선건축 4809, p21
- 12) 빈민주거에 대한 관심은 서구건축가들에게도 사회적 책임부분이었다. 이는 CIAM의 회의결과에서도 찾아 볼 수있다. 해방직후 급증한 인구증가로 식민지 시기부터 부족했던 주택난은 더욱 심화되어 갔고, 당시의 건축가들은 '주거난 해결'이라는 문제를 갖고 많이 고민했다. 조선건축의 특집으로 '주거'가 실린 것은 하나의 실례이다.
- 13) 김정동, 건축가 이희태, 대담, 꾸밈

보여주었던 새로운 형식과 도전이라는 진보적 성격과 고전건축의 추상화 작업이었다. 이것은 한국건축의 고전어휘와 현대어휘의 결합으로,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를 실험을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것은 형식과 내용에서 '전통적인 것'을 맹목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하는 사회에 진취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희태의 고전건축 어휘에 대한 현대화는 전통에 몰입함으로 해서 다소 복고주의적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말까지에 해당된다. 즉 '절두산 순교기념관(1964)'에서 전통적 디테일을 선보이기 시작하여 '국립극장(1967)', '국악사양성소(1967)', '국립경주박물관(1972)', '국립공주박물관(1973)', '부산시립박물관(1975)', '부산연암회관(1979)'으로 연속되면서, 전통에 대한 고민은 계속된다.

당시의 '건축문화풍토' 하에서 한국 건축의 발전적 계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희태의 고민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당시 활동중인 대다수 건축가의 교육배경은 식민지 기간 동안 기술자 교육만을 받는 등 현실적인 문화풍토와 유리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서구 건축문화의 우월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학파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비해 이희태는 이력에도 나타나듯이 학교에서의 정식교육 경험은 건축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건축교육의 장은 '사회'였다. 이러한 측면은 이희태를 토착 건축가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데, 주변의 건축환경을 스승으로 삼아 독자적인 건축언어를 형상화하려고 한 작가에게는 전통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주거건축에서 작가의 작품성격이 잘 드러나는데, 몇몇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마을계획 등이 있는데, 그의 주거건축은 특이하다. 특히 단독주택보다는 집합주거형태에서 작가의 건축 특성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외인아파트(1968)'와 '힐사

이드아파트(1978)'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성 라자로 마을'(1972-1981)을 마스터플랜부터 참여하여, 마을내의 대다수의 건축물을 설계했는데, 기존형식과는 다른 건축형태를 통해 다양한 형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삶의 형식을 가장 잘 내포하고 있는 주거건축이 작가의 다양한 건축어휘와 잘 연결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본문에서의 작품분석은 시기적인 분류보다는 건축형식의 특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축형식은 '건축의 새로운 유형추구'와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 추구'이다. 작품들은 이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작가의 작품 전체를, 두가지의 틀만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기에 분석에서 누락된 건물들이 다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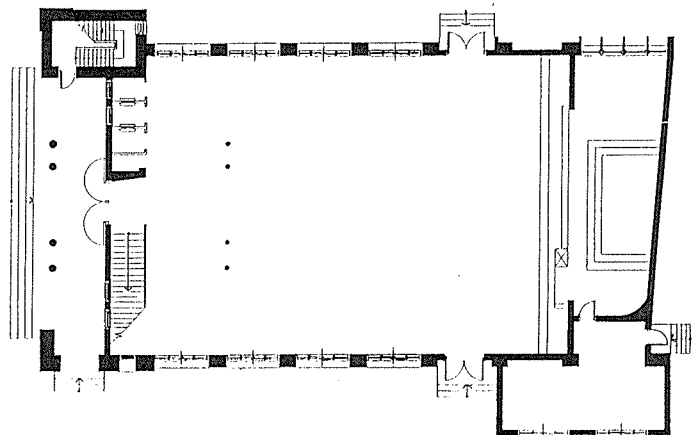
1. 건축의 새로운 형식추구

이희태는 1945년 11월 15일에 실시된 '국민주택 설계안' 공모에서 15평형(제1종)에서 3등, 20평형(제2종)에서 가작, 25평형(제3종)에서 3등으로 입선하였다. 이 설계공모는 당시 건축계의 높은 관심속에 진행되었으며, 1946년 3월 21일부터 중앙백화점 5층 화랑에서 6일간 전시회를 가졌다. 그리고 1947년에는 '서울 만물전 현상설계'에서 성낙천과 공동출품¹⁴⁾하여 3등에 당선되었다. '조선건축기술단' 주관의 '여성의 주택교육 프로그램'에서 행한 강연은 그가 갖고 있던 주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에 대한 개념', '개량주택과 문화주택에 대한 생각' 등이 나타난다.

"<주택개선>이란 어구를 쓰는 것은 현하(現下)의 질적,양적 주택란이 극기(極基)해야 극빈자나 귀한동포는 오척여(五尺餘)의 신체하나 디러놀 방한칸 없는 이때 대단히 현실에서 떨어진 이상주의적인 것이라고



진해 천주교 성당



진해 천주교 성당 1층 평면도

14) 김정신, 한국 카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논, 1989

"이희태는 명수대성당(1954), 혜화동성당(1960) 등을 통해 입방체형의 근대(modern)성당건축을 시도하였다. 이들 건물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교회건축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의 정신에 부합한 것이다."

15) 김정신, 한국 카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논, 1989

16) 1986년에 새로이 주니공

17) 김정신, 한국 카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논, 1989

생각될런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재래문인들이 관념론적 또는 피상적으로 주택의 개선을 불려온 것이다. 소위 <인텔리겐차>들이 제창한 문화주의적 생활의 미화가 아니고, 좀더 현실적인 면에서 원대한 국토계획 지방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사회구성하에서의 주택개선을 논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건설하고 긴요한 것도 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 재래의 개량주택을 아는 여성들은 개량주택이란 기능에 대하여 다대한 의문을 가지는 모양인데 그도 필자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재래의 문화주택이라면 대개가 <아메리카니즘>적인 건축가들이 구미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적(전체의 프로포손을 무시한 것과 같은) 구조설비를 함으로 마치 버선발에다 <센달 슈즈>를 신는 격의 구조의장임으로 자연 조선의 기후풍토를 무시하게되어 우리의 생활엔 적합치 않음으로 개선주택이라면 다 이런 것으로 알고 불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일정시 일부의 일본인 건축가들의 현대건축 곡해에서 온 이념하에 주택개선이었다는 것과(그러나 일인자신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적합하였을 것이다) 조선의 건축가는 태무(殆無)하였다는 것이 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 조선의 건축가가 현대건축재료로 조선의 완성된 건축이 파리나 가주(加州)에 설립되는 경우에는 천연 사용불능이 되어서 마땅한 것과 같이 미불의 건축양식이 조선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요컨대 이러한 건축이념을 정리한데서 창조되는 주택이라야 비로서 조선의 주택이 되고 따라서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¹¹⁾

앞의 글을 통해 이희태의 주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조선의 주택’을 ‘...이러한 건축이념을 정리된데서 창조되는 주택...’이라고 하면서, 우리 삶에 맞는 건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주택개선’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개

량주택’과 ‘문화주택’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은 건축가의 나태함에서 오는 것임을 지적하며, 우리삶이 수용된 건축이 필요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국민주택 설계안’에도 반영된 생각으로, 당시의 주거에 대한 관심은 단지 이희태 개인의 관심사는 아니었고, 해방후 국가 재건사업과 연결지어 건축가의 사회적 의무¹²⁾로 받아들이고 있었던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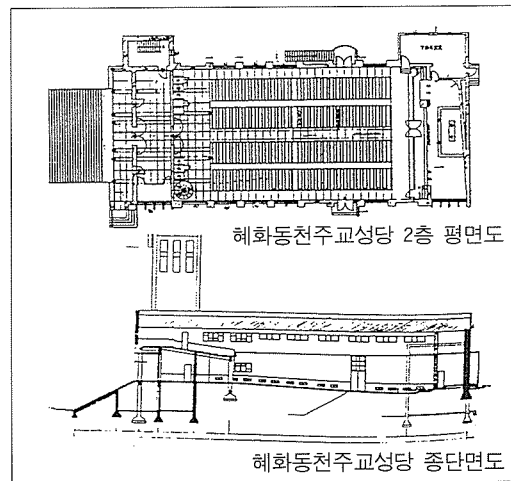
당시 의장과 도학을 서울대 미대에서 강의했던 이희태는 이 기간이 색채학과 디자인 연구에 심취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에 그의 작품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그의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명수대성당(1953)을 들 수 있는데, 전란후 완성된 이 성당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다수의 예술인들이 협력설계를 진행했다는 의의와 종교건축의 형태에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설계되는 ‘진해천주교성당’ (1955), ‘혜화동천주교성당’ (1955), ‘경주천주교성당’ (1955), ‘천주교전주교구주교관’ (1957), ‘아현동천주교성당’ (1958) 등 다수의 성당 건축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¹³⁾가 되었다.

주거와 종교 건축에 한정되어 있던 이희태의 작업도 국가의 경제발전계획이라는 시대의 요구로 50년대 후반, 60년대 들어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1956년의 제동빌딩을 비롯해서 메트로호텔(1955), 서강대학교신부관(1960), 명지대학교본관(1962), 용산양곡방열창고(1966~68), 무역센타(1968) 등의 근대기능을 요구하는 건물들이 이 시기에 설계되었다.

그리고 작가의 작품성격을 보여주는 몇몇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마을계획 등이 있는데, 그의 주거건축은 특이하다. 단독주택-평창동 유씨주택(?)-보다는 집합주거형태에 작가의 건축 특성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외인아파트(1968)’ 두동과 ‘힐사이드아파트(1978)’, ‘렌티드 주택(?)’, 그리고 ‘성라자로 마을’(1972-1981) 등이 있다. 주거의 형식은 기



혜화동천주교성당



혜화동천주교성당 2층 평면도

혜화동천주교성당 종단면도

“이희태와 유희준 등에 의한 근대건축이 성당의 적합한 표현방법으로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 18) 내용은 주로 이 성당의 사무장과의 대담에서 나왔다. 현재는 기념사업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자료자체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흐릿한 사진을 통해서만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종탑의 모습과 성당의 근대적인 형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19) 서울옥백년 제5권, p.664-665
“1958년에 혜화동 네거리에 세운 혜화동성당은 이희태의 작품으로 전면의 상부를 무창의 광활한 면으로 하고, 거기 부조를 넣었으며, 하부는 쌍과 홀수로 된 기둥열로 그것을 받쳤고, 좌측의 붉은 벽돌의 종탑은 백색의 부조벽면과 대조되어 수직 육면체로서 있어서 근대적인 비대칭균형을 나타내

존의 주택이나 아파트들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작가의 다양한 어휘가 잘 나타나고 있다.

1) 흑석동 명수대 천주교성당(1952)¹⁴⁾

해방직후, 전쟁기간, 휴전후에 지어진 성당건축은 일제시대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조잡하고 일률적이었다. 다만 50년대 말부터 몇몇 근대적인 성당건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교세의 양적인 팽창으로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건물이 지어졌다는 이유와 건물을 짓는 비용 대부분을 외국의 교회와 신자단체의 원조에 의존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건축을 주도한 성직자 지도급이나 신자들의 건축에 대한 양식부족, 건축가들의 인식부족이 원인이었다. 이 시대의 성당건축은 3개의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양식변형의 양옥성당이고 다른 하나는 탈양식의 근대주의적 성당이며, 나머지 하나는 형태의 토착화를 추구한 절충식 성당들이다.¹⁵⁾ '흑석동 명수대 천주교성당'은 3개 유형중 탈양식의 '근대주의적 성당'으로 이후에 이어지는 이회태의 성당 형태에 모체가 된다. 본 성당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으로 1952년, 전란중에 완성되었으며, 현재 건물은 남아 있지 않다¹⁶⁾. 본 성당은 다수의 예술인들이 '협력설계'를 진행했다는 의의와 현대 종교건축의 '형태'에 새로운 인식과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¹⁷⁾는 두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예술인들이 협력설계를 진행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계획단계에서 성당 계획의 총책임은 장발교수가 맡고, 건축설계는 이회태, 성수그릇은 이순석, 글은 장우성, 성상은, 김세중, 14처는 권순형, 김교만, 모자이크는 남용우 등이 담당하여, 다수의 예술인들이 함께 건물을 만드는데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건축의 형태에 새로운 인식과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은, 이 당시 종교건축물의 디자인 양식이 천편일률적으로 구미의 복고적인 형식에서 벌어진 고딕식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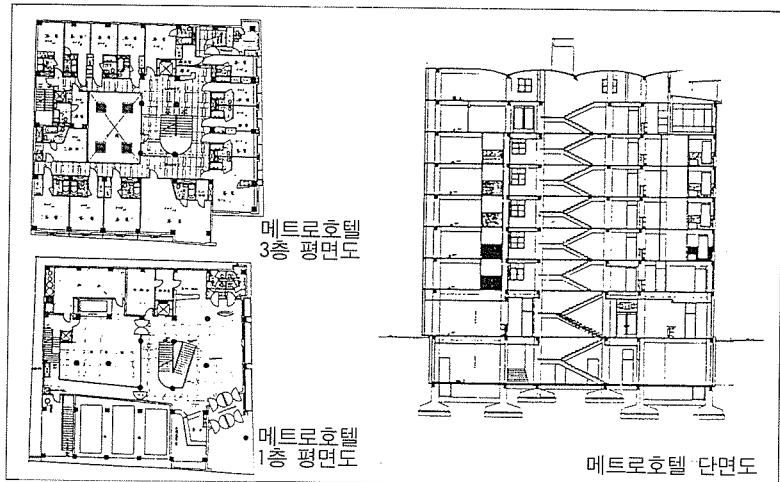
탑을 답습하였는데, 기존의 관습으로부터 일대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대 모더니즘 건축이론에 근거한 기하학적 형식구성과 단순화에 착안한 종탑의 현대화¹⁸⁾는 오랫동안 보편화되어 왔던 교회건축의 양식주의 또는 절충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합리성과 기능성, 창의성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난 종탑의 형식은 이후에 설계되는 성당건축의 디자인 어휘에 있어서 중요 모티브로 작가의 건축물에 사용되는데 본성당은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혜화동 천주교성당(1955)¹⁹⁾

혜화동 성당은 작가의 특성 중 새로운 유형추구라는 측면이 가장 잘 나타난 건축물로 작가의 성당건축에 하나의 획을 긋고 있다. 입면의 전반적인 특징은 기하학적 단순화와 반복적인 율동이 입면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형식적 구성감각의 세련미를 보여 주고 있다. 작품전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하학적 단순화 과정과 추상화 작업, 재료의 질감과 색채대비를 통한 적절한 조합은 그의 작품세계 전반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벽돌, 콘크리트, 돌 등의 재료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작가의 재료에 대한 감각은 건축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필요이상의 장식을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은 근대주의계열의 청교도적인 건축성향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명수대성당'에서 추구된 근대적인 성당형식은 경주성당(1955), 진해성당(1955), 인천 송림동성당(1955)을 통해 혜화동성당에서는 하나의 형식으로 정착이 된다. 전체 형식을 살펴보면 전체가 철근콘크리트조의 장방형 평면을 가진 육면체의 근대적인 건물로 '내부공간의 분절'이 없을뿐만 아니라 '아치나 보울트의 구성'도 없다. 의장적 요소인 종탑의 독특한 형태나 창의 모양, 그리고 구조, 재료의 사용에서도 탈양식적으로 '근대건축의 정신-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1962~65)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작품을 전반적



메트로호텔



메트로호텔
3층 평면도

메트로호텔
1층 평면도

메트로호텔 단면도

고 있다.”

- 20) 이회태의 건축물을 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접근을 회피하거나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본 성당에서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이용한 빛의 차단이나, 세로로 긴 창을 뚫어서 공간을 강조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이미지의 공간 형성에 어느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사진 참조)
- 21) 입면요소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로 계단옆의 측면에 콘크리트를 세로로 길게 세워서 3개내지 4개의 세로로 긴 창을 구성하고 있다.
- 22) 김정신, 한국 카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 1989

으로 살펴보면, 입면상의 비례와 균형에 중점을 두고, 고전적 의미의 형식 규범을 일탈하여, 기존의 획일화된 종교 건축 양식이 아닌, 새로운 유형을 창출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은 그 당시의 성당건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종교건축에 미친 영향으로 보았을 때, 해화동성당의 역할은 명수대성당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당의 평면형식은 유축형, 유심형, 방사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성당은 열주가 없는 일방형으로 앱스(apse)가 없는 장방형의 유축형이다. 제단 옆으로는 보조공간이 부속되어 있고, 내부는 열주나 공간의 분절이 없는 단일한 강당형태이다. 공간이 장방형으로 좁고 길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능성과 공간성을 추구한 결과이다. 여기서 공간성의 추구²³⁾는 내부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제단의 측면²⁴⁾을 통해서 빛이 길게 들어온다. 그리고 회중석 창으로 부터 들어오는 빛은 가능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빛의 조절은 제단을 더욱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천장의 마감에 있어서 선의 흐름이 사람들의 시선을 무의식적으로 십자가로 모아 제단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것도 또한 종교적인 분위기의 내부공간을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여겨진다.

단면은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형식²⁵⁾ 이었다. 성당내부 구성은 배면의 일부만이 중층- gallery나 triforium-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희태가 설계한 성당 단면의 공통점²⁶⁾이다. 건물이 단층을 이루는 것은 지어진 연대가 625직 후인 1954년, 1955년인 것으로 보아, 재정적인 뒷받침의 부족이 일차적인 이유인것 같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찰건축을 모방²⁷⁾했다는 것이 또다른 이유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의 성당건축과 사찰건축은 실질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기능이 배치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찰 건축은 한 건물이 한가지의 기능만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기능의 집적이 아닌 분산현상으로

기능은 배치를 유도하고, 배치상의 외부공간은 주변의 건축기능에 따라 독자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 해화동성당도 본 건물은 예배공간으로 단일 기능의 성격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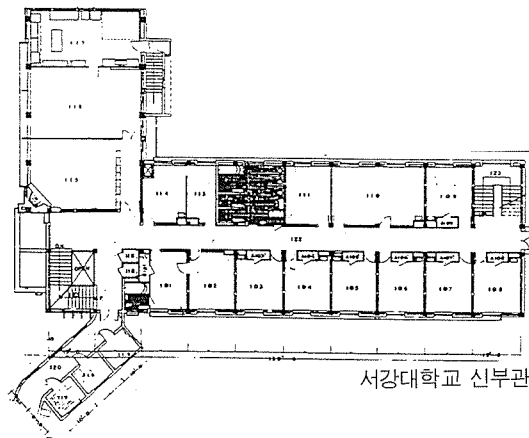
평면구성의 변화와 함께 건축의 입면 형태도 다양해지고 자유로와지는데, 우선 지붕형태가 훨씬 다양해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성당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었던 정면의 중앙종탑이다. 종탑은 이희태의 건축에서 성당 전체의 일부-경주성당(1955),진해성당(1955)-나 독립된 탑-인천 송림동 성당(1954)-으로 조형요소로 자유로와지고 조형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 입면은 '종탑(有無를 포함해서)', '지붕', '출입구', 그리고 주로 벽면을 구성하는 '창문' 등이 주요 구성요소로 분류된다. 우선 종탑의 형태를 분석하면, 이희태의 성당건축을 가장 현대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로, 명수대성당에서 최초로 나타난다²⁸⁾.

종탑의 특징은 첫째, 종탑을 기하학적으로 디자인하였다는 것으로, 해화동 성당의 경우 정면에서의 비례관계는 약 1:2이다. 둘째는 종탑상부의 디자인인데, 상부는 창문과 같은 형식으로 구멍을 뚫어놓고 있다. 구멍을 낸 형식은 기하학적으로 면나누기를 하고 있는데,성당마다 디자인이 다르다. 그리고 진해성당이나 경주성당은 종탑의 모양이 상부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지는데, 경주성당은 경사진 형식이 성벽을 연상시킨다. 이곳의 상부도 정사각형 모듈속에서 각방향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다. 마치 몬드리안의 구성을 보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셋째는 종탑의 부조로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있는데, 이 부조는 입면을 경건하게 한다. 이런식으로 종탑은 작가의 성당건축에 근대성과 명증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은 지붕형식으로 해화동 성당은 좀 특이한 형식을 하고 있다. 지붕의 형태는 박공형식인데, 외부에서 가벽 형식으로 지붕을 에워싸고 있어서 외부에서는 지붕이 박공형식-다른 여타의 성당들은 박공형식으로 노출되어 있다.-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게



서강대학교 신부관



서강대학교 신부관 1층 평면도

23) 경주성당, 진해성당, 인천의 송림동성당 등에서 같은 형식이 나타난다. 그러나 송림동성당은 증축을 하면서 철거를 했다.

24) 불교는 우리나라에 뿌리내린지 오래된 종교로, 종교행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은 그 역사와 삶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신흥종교를 나타내는 기독교건축물들은 삶의 표현방식에서 모방하게 되었을 것이다.

25) 김정동, 건축가 이희태(대답:김정동), 꾸밈 7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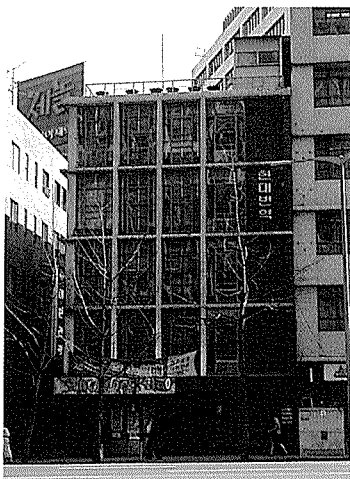
뽕죽탑을 없애버린 것에 대해, 작가 스스로 '파격적인 발상'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26) 화제로 골조만 남아있지만 창문의 형태는 경주성당, 진해성당 등의 도면을 통해 상상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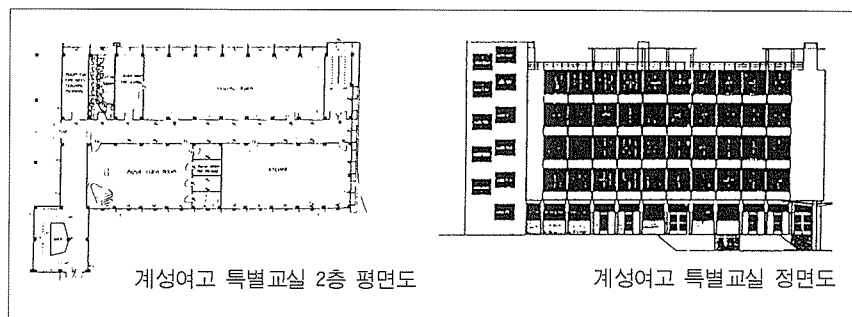
한다. 이 상부로 확장되어 올라간 벽은 성당의 본래의 크기보다 확장되어 보이게 하고 매우 근대적인 양식으로 느끼게 한다. 비례를 살펴보면 성당 출입면의 2배(입면 참조)를 이루는데, 이것은 종탑과의 비례와 상관성이 있었으리라고 보아진다. 출입구 형식은 이회태가 이미 경주성당이나 진해성당 등에서 사용했던 양식으로 출입문 앞에 전정(지붕으로 덮인 공간)을 두면서 쌍기둥-절두산 복자기념성당과 국립극장, 국악양성소 등에서 변형된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작가의 건축어휘로 나타난다-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성당에서도 경사진 대지를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출입문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쌍기둥이 놓여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필요성 보다는 종교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것으로, 마치 사찰건축을 들어갈때 그 절을 지키는 사천왕상이 서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마지막으로 벽면을 이루는 '창문형식'인데, 창의 요소는 천정의 바로 아래-보 밑에-에 위치하는 고창과 강당측면의 창, 그리고 제단 측면의 세로로 길게 세워진 창 등 3가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 창들은 각각의 비례를 말하고 있다. 송림동성당의 경우에는 고창과 측면창의 높이가 1:2의 비례를 갖고 있고, 측면창은 내부적으로 정사각형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것은 경주성당²⁷⁾이나 다른 성당에서도 나타나는 관계이다. 이러한 정비례는 입면을 기하학적으로 보이게하고 안정되어 보이게 한다. 즉 벽면은 장식이나 양식적인 상제는 없으나 격자창에 의한 입면 구성과 고창을 통해 내 외부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리고 제단 옆의 길게 세워진 창은 구조적으로 뚫었다는 표현보다는 창대를 세우고 그사이를 유리로 끼어넣은 형상으로 당시 학교건축의 루바양식과 흡사한데, 출입구부분과 함께 양단으로 세워짐으로 해서 입면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3) 제동빌딩(1960)



제동빌딩



계성여고 특별교실 2층 평면도

계성여고 특별교실 정면도

사무소건축의 출현은 식민지 시기부터 한국인 건축가의 등장²⁷⁾과 무관하지 않다. 1920년 회사령의 폐지는 한국인 기업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자신들을 나타낼 건물의 디자이너로 한국인 건축가를 필요²⁸⁾로 했다. 1960년대의 사무소건축도 같은 맥락인 경제발전이라는 물적 토대 속에서 만들어 졌는데, 제동빌딩은 당시 현대인들의 삶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이 건물의 입면과 평면에서 '자유로움'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입면을 분석하면 전면이 전창으로 기둥으로부터 자유로운데, 근대건축의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미스의 '파빌리온'을 연상케한다. 물론 현재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커튼월이나 전면창과는 다르지만 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처리된 것이 '커튼월'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건물의 입면은 스라브뚜께가 선으로 얽혀지고 나머지 창은 면으로 얽혀져 몬드리안의 '구성'을 연상케 하는 명징성과 투명성이 느껴져서, 데스틸의 디자인규범을 연상시킨 이러한 것은 구조재료와 표피재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근대적인 개념에서 출발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다시 평면에서도 명쾌하게 읽혀지는데, 기둥밖에 벽면이 위치하여 구조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다. 특히 계단실을 일자형으로 측면에 위치시킴으로써 입면의 명징성을 높이는데, 즉 계단창이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측면이나 정면의 창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건물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면서 계단옆으로 넓은 복도(로비)를 확보함으로써 공용면적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내부공간의 답답함을 덜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면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건물내부에 깊이까지 끌어 들임으로써 전면에 비해 측면이 긴 건물의 내부공간을 밝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일자계단이 끝나는 지점을 둥글게 처리함으로써 계단의 이용시 느낄 수 있는 답답함을 덜어주고 있다.

27) 송울,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3.

28) 송울,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3.